

# 백제의 심초 및 사리봉안

정 자 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유적사례검토

1. 군수리사지
2. 능산리사지
3. 왕흥사지
4. 전 천왕사지
5. 금강사지
6. 서복사지
7. 제석사지
8. 황룡사지

## III 심초

1. 심초 형태와 구조
2. 심초 안치위치 및 방법

## IV 사리구

1. 사리구 종류와 형태
2. 사리기 봉안장소

## V 시기적 변천과정 검토

1. 심초
2. 사리구

## VI 맺음말

2008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1 No. 1

# 백제의 심초 및 사리봉안

정 자 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08. 08. 25 / 심사일자 : 2008. 09. 25 / 게재확정일자 : 2008. 10. 10]

## 국문초록

최근 들어 삼국~통일신라시대 목탑지 발굴조사가 증가되고 목탑 조영과 관련된 자료들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 분야의 연구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목탑 연구는 평면형태, 축기부 축조기법, 사리장엄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신자료의 확보를 통해 기단 구축과정 및 변천과정 더 나아가 목탑 복원 등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보이는 탑지가 조사되어 한·중·일 고대 목탑 비교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삼국시대 중 가장 많은 목탑이 조사된 백제 목탑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목탑 가운데 심초와 사리기 봉안 장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심초는 지하 → 반지하 → 지상으로 그 위치가 점차 변해가는 양상이 파악되었는데, 백제 목탑은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A.D. 567), 왕흥사지(A.D. 577) 목탑 조영시기인 6세기 중반까지 심초가 지하에 안치되다가 이후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석사지(A.D. 639)나 황룡사지(A.D. 645) 목탑 조영시기인 7세기 전반기에 지상식으로 고착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리기는 초창기에 심초 이외의 장소에 봉안되다가 점차 심초 내부인 사리공에 안치되는데, 사리공 안치 위치도 심초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던 것이 점차 중심부로 옮겨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왕흥사지 축조시기인 6세기 중반에 가서야 심초에 사리공이 결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확인된 비조사(飛鳥寺 A.D. 588) 심초 보다 약 11년 정도 앞서는 것이며 중국에서 조사된 영녕사(永寧寺 A.D. 516)나 조팽성 불사(趙彭城佛寺 A.D. 535~561) 목탑 심초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왕흥사지 심초가 이런 유형으로는 현재까지 가장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목탑, 심초, 사리구, 사리기

## I. 머리말<sup>1)</sup>

근래에 들어와 경주·부여·익산 고도(古都)지역에서는 고대 사찰 유적에 대한 정비·복원<sup>2)</sup>, 사라져가는 고대 사찰 유적의 원형 규명 및 공사 등에서 확인

된 사찰 관련 유구·유물에 대한 긴급조사<sup>3)</sup> 차원에서 학술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는 황룡사지, 부여지역에서는 서복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용정리사지, 익산지역에서는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 삼국시대에 조영된 방형의 목탑지가 사찰 정중앙에서 확인되었

으며 그 내부에서 사리 관련 중요 유물들이 간혹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국시대 방향의 목탑지는 지금까지 백제·신라지역의 수도에서만 조영된 것이 특징이다<sup>4)</sup>.

한편, 이러한 목탑지는 1970~80년대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발굴조사 이후 관련 자료가 최근까지 꾸준히

축적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목탑지 평면형태, 기단 구축방법, 기단 구축과정 복원 등 목탑 연구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왕흥사지 목탑지 정중앙에 세우는 심주(心柱)의 받침돌인 심초와 그 주변에서 중요 사리구<sup>5)</sup> 등이 대량 출토되어 고대 동

- 1 본 고는 정자영, 2008, 「백제의 목탑 - 심초 및 사리구를 중심으로」, 月刊『考古學ジャーナル』2008年 8月□□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음을 밝혀 둔다.
- 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4, 『慶州 天官寺址發掘調査報告書』學術研究叢書 38  
 , 2005, 『芬皇寺 發掘調査報告書 I (本文/遺物圖版)』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05, 『南里寺址(傳念佛寺址) 發掘調査報告書』學術研究叢書 46  
 , 2005, 『傳 仁容寺址 發掘調査』, 『年報 2004』第15號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 『부여 군수리사지』, 『年報 200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7, 『慶州 傳 仁容寺址 發掘調査』, 『年報 2006』第17號  
 , 2008, 『慶州 南山 三陵溪 石佛坐像 復原·整備』, 『年報 2007』第18號  
 , 2008, 『慶州 南山 列岩谷 石佛坐像 復原·整備』, 『年報 2007』第18號  
 , 2008, 『慶州 傳 仁容寺址 發掘調査』, 『年報 2007』第18號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8, 『慶州 芬皇寺發掘調査』, 『年報 2007』第18號  
 , 2008, 『부여 능산리사지』, 『2007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8, 『익산 제석사지』, 『2007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8, 『익산 제석사지 1차 현장설명회자료』  
 김낙중·정자영·이화영, 2008, 『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定林寺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구현황』 국제학술대회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부여군, 2008, 『定林寺 역사문화적 가치와 연구현황』, 국제학술대회자료집  
 (財)湖南文化財研究院, 2008,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강당지 복원 배수로 정비사업』,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98冊. 이 외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에 의해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 미륵사지 복원 고증연구, 정림사지 정비복원 고증연구, 황룡사 복원 정비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 3 國立博物館, 1969, 『金剛郡 - 扶餘郡 恩山面 琴公里 百濟寺址 發掘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七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4, 『彌勒寺址 東塔址 및 西塔址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7, 『益山 彌勒寺址 東塔址2次 發掘調査報告書』, 『馬韓百濟文化』2輯  
 尹武炳, 1981,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圖書出版民族文化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2, 『彌勒寺址 發掘調査 中間略報告』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I  
 尹武炳, 1987, 『扶餘定林寺址蓮池遺蹟發掘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9,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a, 『龍井里寺址』, 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5輯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b, 『扶餘舊衙里百濟遺蹟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7輯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c, 『扶餘 傳 天王寺址 文化財保存地區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36輯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 廢寺址 發掘調査報告-』,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II,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 本文 / 圖面·圖版,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8冊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彌勒寺址西塔周邊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28輯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扶餘 王興寺址』, 『2001 年報』  
 , 2002, 『扶餘 王興寺址』, 『2002 年報』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2, 『王興寺 發掘中間報告』, 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33輯.  
 , 2003, 『부여 왕흥사지』, 『2003 年報』  
 , 2004, 『부여 왕흥사지』, 『2004 年報』  
 , 2006, 『부여 왕흥사지』, 『2005 年報』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7, 『慶州 四天王寺址 發掘調査』, 『年報 2006』第17號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부여 군수리사지』, 『2006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7, 『부여 왕흥사지』, 『2006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8, 『부여 왕흥사지』, 『2007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8, 『부여 군수리사지』, 『2007 백제 문화를 찾아서』  
 , 2008, 『부여 왕흥사지 제9차 현장설명회자료집』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8, 『慶州 四天王寺址 發掘調査』, 『年報 2007』第18號
- 4 고구려의 경우는 목탑지가 평면 팔각형으로 조영되었다. 朝鮮古跡研究會, 1939,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13年度 古蹟調査報告』
- 5 탑 내부 및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 및 용기, 위치에 따라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사리구(舍利具), 공양구(供養具), 지진구(地鎮具) 등으로 명명되며 연구자 마다 약간씩 차이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 김희경(김희경, 1996, 『사리구』 대원사 p8)은 "사리구는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이는 탑 안의 사리공에 봉안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강우방(강우방, 1993,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은 "'사리장엄'이란 용어의 개념에는 사리를 직접 봉안하는 다중구조의 사리용기와 법사리로서 봉안하는 경전, 다라니를 납입한 작은 탑, 그리고 불상 등은 물론 공양구 및 지진구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채용하여 사리구는 사리(용)기(舍利器)와 공양품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아시아 목탑 연구에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sup>6)</sup>. 그러나 지금까지 고대 목탑에 대한 연구는 목탑 평면이나 기단부, 장엄구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심초나 사리봉안에 대해서는 그 조사 예가 미약하여 연구가 부진하였다<sup>7)</sup>.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심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사리봉안 장소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고대 목탑은 주로 백제시대인 관계로 백제시대 심초와 사리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신라시대의 경우는 황룡사지 심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sup>8)</sup>.

## II. 유적사례검토

### 1. 군수리사지<sup>9)</sup>

군수리사지 심초는 잔존 기단토 상면 약 180cm 깊이(상면기준), 심초구덩이 정중앙에 위치한다. 심초구덩이는 심초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남북 길이 188cm, 동서 길이 244cm의 규모로 되어 있다(사진 1). 화강암으로 제작된 심초는 평면 정방향으로 크기는 한 변 94cm, 두께 38~45cm이다. 상면은 평평하게 다듬었고 약 5cm 정도로 단이 저 있는 하부는 모죽인 원형으로 되어있으며 크기는 남북 길이 138cm, 동서 길이 130cm이다. 심초 남북단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북고남저(北高南低)로 동서단면은 비교적 평탄하다. 심초 상면에는 북서·북동 모서리에 각각 1개의 홈과 남쪽 중앙에 1개 등 3개의 홈이 파여져 있는데 역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다(도면 1).

이러한 심초는 심초구덩이 맨 아래 바닥인 모래층(생토층) 상면에 그대로 올려 놓은 채 안치되고, 그 주변으로 심초 높이만큼 숯과 점토를 이겨 단단하게 다짐하여 고정하였다. 심초 서측에는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도(경사로)가 남북 폭 180cm, 동서 길이 474cm 규모인 세장방향으로 확인 되었는데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2).

출토유물로는 심초 중심부 상부에 해당하는 1.21m 깊이에서 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토기·칠지상 철기가, 1.31m 깊이에서 군수리석조여래좌상·금고리·소옥류가 확인되었다(사진 3·4). 출토 불상과 기타 편년으로 보아 6세기 중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sup>10)</sup>.

### 2. 능산리사지<sup>11)</sup>

능산리사지 심초는 잔존 기단토 상면 약 150cm 깊이, 심초구덩이 정중앙에 위치한다. 심초구덩이는 목탑지 서·북·남 기단 가장자리에서 약 5.1m 안쪽에 위치하며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2.2m, 동서 폭 2.0m 이상이다. 심초구덩이 내부에 위치한 심초는 평면 장방향으로 크기는 남북 길이 130.5cm, 동서 폭 106cm, 두께 50cm이다. 화강암의 심초 상면은 평평하

6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8, 『扶餘 王興寺址出土 舍利器의 意味』,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7 金正守, 1984, 『望德寺 13層木塔의 形態推定에 관한 研究』, 『建築』 제28권 제119호, 대한건축학회

강우방, 1993,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權鍾滿, 1998, 『韓國 古代 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研究 : 皇龍寺 木塔의 復元의 考察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學位論文

김연수, 1999, 『百濟의 舍利莊嚴에 대하여』, 『東垣學術論文集』 第2輯

周昉美, 2002, 『中國 古代 佛舍利莊嚴 研究 - 魏晉南北朝隋唐時代를 중심으로』, 서울 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 美術史專攻 文學博士學位論文

김정수, 2004, 『신라시대 목탑의 전래에 관한 연구 - 칠주와 심초석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朴待男, 2005, 『朝鮮半島三國時期寺院平面布局類型研究』, 北京大學博士研究生學位論文

鄭子永, 2006, 『한국 고대 목탑지 기단 및 심초부 축조기법 연구 - 부여 군수리사지를 중심으로』, 崇實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佐川正敏, 2006, 『日本古代木塔基壇의 構築技術復原과 基礎設置形式의 變遷에 관한 연구』, 『百濟研究』 第44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정자영·탁경백, 2007, 『한국 고대 목탑의 기단기단 및 심초부 축조기법에 관한 고찰 - 백제 사지를 중심으로 -』, 『文化財』 第40號

8 황룡사지 심초석 사리공 출토 사리구는 “황룡사지 목탑지 심초석 내부에서도 사리 관련 유물 등이 출토되었으나, 삼국시대 사리기는 없었으며 구층탑을 다시 세운 경문왕대에 새로 납입한 9세기의 사리 관계 유물”(강우방, 1993, 위의 논문 p.42 각주 27 재인용)인 관계로 본 고 사리구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9 石田茂作, 1937,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6, 『부여 군수리사지』, 『年報 2005』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7, 『부여 군수리사지』, 『2006 백제문화를 찾아서』

10 군수리사지의 경우 건립시기가 출토 불상(문명대, 2003, 『관불과 고졸미 - 한국의 불상 조각』, 예경과 기타 편년(소재운, 2004, 『百濟 瓦建物址의 築造技法과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웅진·사비기의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全北大學校 大學院 考古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p.64)으로 보아 6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정자영·탁경백, 2007, 위의 논문 p.129에서 심초안치 위치의 변천과정으로 볼 때 군수리사지를 능산리사지 보다 앞선 단계로 설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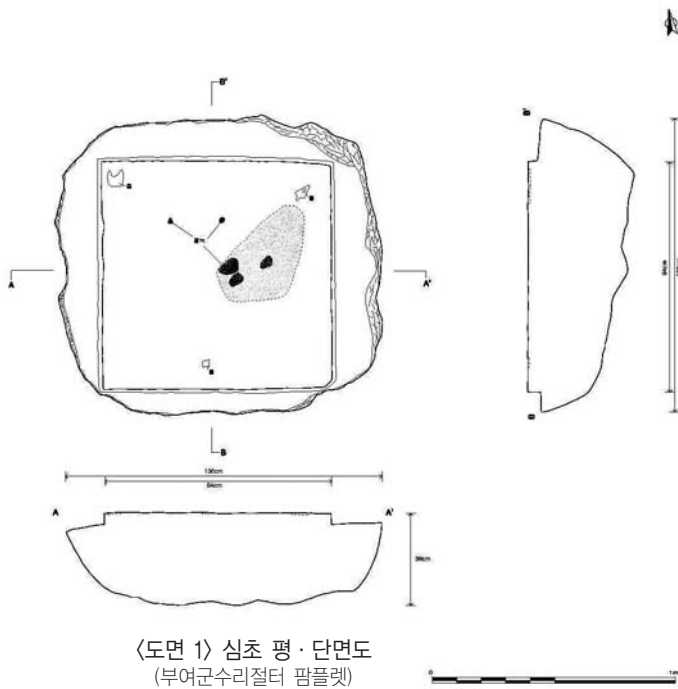
11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 本文 / 圖面·圖版,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8冊.



〈사진 1〉 목탑지 심초 발굴상태  
(石田茂作, 1937,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圖版第五八)



〈사진 2〉 목탑지 심초구덩이 및 사도  
(鄭子永, 2006, 위의 논문, p.25)



〈도면 1〉 심초 평·단면도  
(부여군수리절터 팜플렛)



〈사진 3〉 보물 제329호  
(남석제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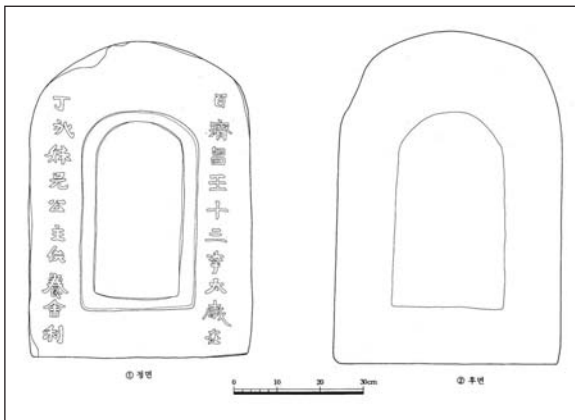
〈사진 4〉 보물 제330호  
(금동미륵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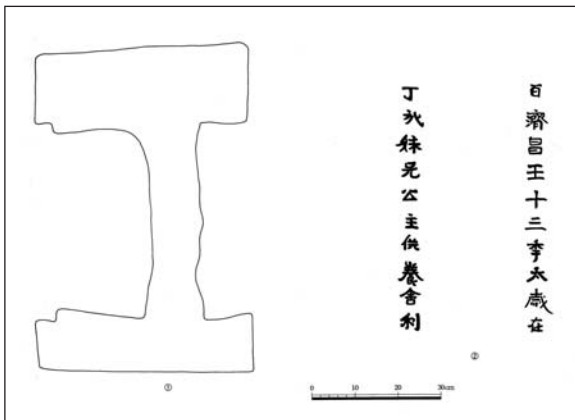
〈사진 5〉 능산리사지 목탑지 심초 상세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圖面·圖版, p.243)



〈사진 6〉 출토유물  
(扶餘郡, 2007, 扶餘文化財大觀, p.131)



〈도면 2〉 석조사리감 정면 및 후면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圖面·圖版, p.200)



〈도면 3〉 석조사리감 단면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圖面·圖版, p.201)

게 다듬었고 하부는 거칠게 조정하였으며 단면은 방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심초는 심초구덩이 맨 아래 바닥 모래층 상면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안치되고, 심초 높이만큼 그 주변으로 점토로 채워 고정하였다<sup>12)</sup>.

심초 상면에는 북동쪽에 심주(心柱), 남쪽에 석조사리감(石造舍利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확인되었다. 지름 40~50cm의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심주는 심초 상면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치우쳐 두 부분으로 절단

된 채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사진 5). 석조사리감의 크기는 높이 74cm, 너비는 가로·세로 각각 50cm로 심주와 나란히 놓여 있다(도면 2·3). 출토유물로는 심초 주변에서 소조불두, 소조불, 심엽형고리 등 총 595점이 발견되었다(사진 6). 석조사리감 명문으로 보아 567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 3. 왕흥사지<sup>13)</sup>

왕흥사지 심초는 잔존 기단토 상면 약 50cm 깊이, 심초구덩이가 중심에 위치한다. 심초구덩이는 남북 길이 약 200cm로 되어 있다. 화강암의 심초는 평면 장방형으로 크기는 남북 길이 110cm, 동서 폭 100cm, 두께 50cm이다. 화강암의 심초 상면은 평평하게 다듬었고 하부는 거칠게 조정하였으며 단면은 반구형에 해당한다.

심초 상면 남쪽 중앙 가장자리에는 16cm(장변)×12cm(단변)×16cm(깊이) 크기의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고, 그 상면에는 모죽임 형태의 석제뚜껑(장변 16cm, 단변 12cm)이 덮혀 있는데 뚜껑에는 사리공에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두께 0.8cm의 턱이 형성되어 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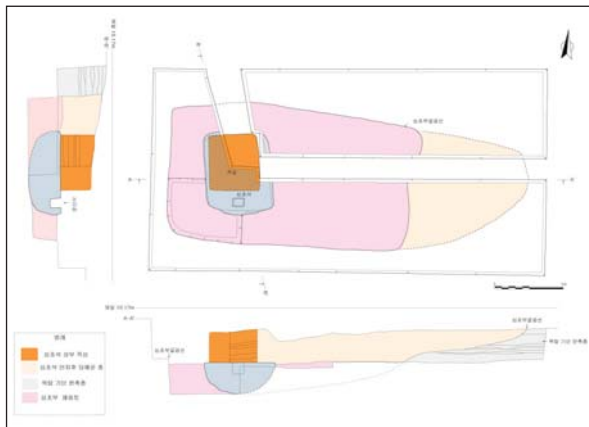
이러한 심초는 심초구덩이 하부를 다짐한 후 그 상면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안치되고, 그 주변으로 심초구덩이와 심초 사이를 단단히 다짐하여 심초를 고정하였다. 이때 소형 석재를 소량 혼입하였다. 심초 동측에는 사도(경사로)가 동서 길이 350cm 규모의 세장방형으로 확인되었는데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도면 4·5).

출토유물로는 사리공 한 가운데에 금·은·동 사리기(舍利器)가 안치되어 있고 사리공 서측과 남측으로는 관모장식, 구슬류, 옥류, 동전, 금·은장신구, 비녀 등 사리공양구 8,000여점이 일괄로 확인되었다(사진 7·8). 동제사리함 명문으로 보아 577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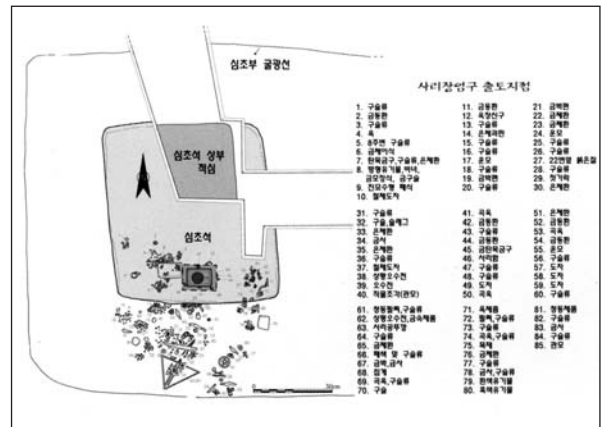
12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목탑지 기단토가 사역 대지를 파내고 맨 밑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점질토와 사질토를 번갈아 다져 쌓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本文-』, p.24)라고 되어 있으나 목탑지 발굴조사 당시 심초 하부만 조사한 관계로 목탑 축기부 전체에 모래를 깔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2007년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당시 사역 북편일대 및 서편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저부가 모두 단단한 기반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수리사지에서 확인된 모래층과 같이 생토층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 (제8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김혜정, 2008, 『왕흥사지 발굴조사 성과』, 『부여왕흥사지출토 사리기의 의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김용민·김혜정·민경선, 2008,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미』, 『목간과 문자』 한국목간학회 창간호.

14 김용민·김혜정·민경선, 2008, 위의 논문 p.270 도면 2, 사진 13~14.



〈도면 4〉 심초부 평·단면도  
(김혜정, 2008, 『왕흥사지 발굴조사 성과』, 『扶餘王興寺址出土 舍利器의 意味』, p.34)



〈도면 5〉 심초 및 사리장엄구 출토상태  
(김혜정, 2008, 위의 논문, p.34)



〈사진 7〉 사리기  
(김혜정, 2008, 위의 논문, p.37)



〈사진 8〉 각종 사리공양구  
(김혜정, 2008, 위의 논문,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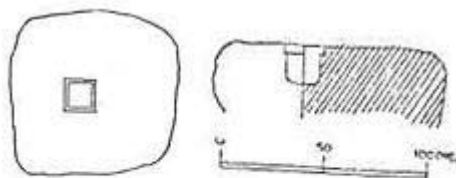
4. 전 천왕사지<sup>15)</sup>

전 천왕사지 심초는 구(舊) 경찰서부지 발굴조사 시 출토된 것으로 크기는 길이 108cm, 폭 94cm, 두께 50cm 이다(사진 9). 화강암의 심초는 상면은 평명하게 다듬어져있다. 단면은 평면보다 약간 내만하도록 제작되었다. 심초 상면 중앙에는 정방형으로 길이 18cm, 깊이

12cm,



〈사진 9〉 전 천왕사지 심초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 위의 책, p.6)



〈도면 6〉 전 천왕사지 심초  
(李殷昌, 1964, 『考古美術』 第5卷 6·7號, p.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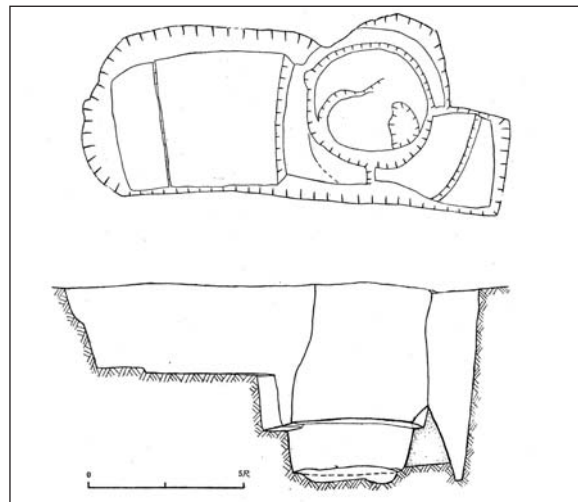
폭 3cm의 뚜껑 턱이 있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뚜껑 턱을 제외하면 실제 사리공의 크기는 12cm×9.5cm의 크기이다(도면 6).

15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c, 『扶餘 傳 天王寺址 文化財保存地區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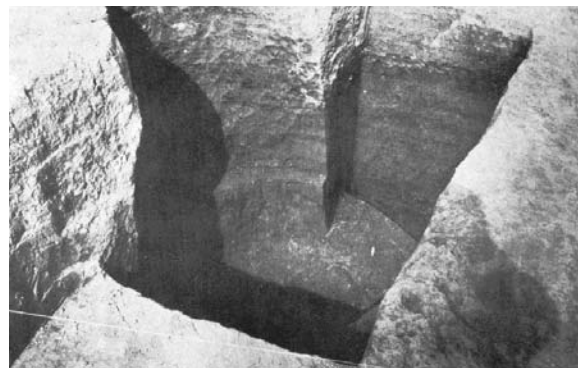
### 5. 금강사지<sup>16)</sup>

금강사지는 목탑지에서 심초가 확인되지 않은 백제 사찰 유적이다. 그러나 목탑지의 잔존 기단 상면에서는 남북 길이 약 4m, 동서 폭 약 2.1m 크기의 부정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이 구덩이는 잔존 기단 상면에서 깊이 약 1.8m, 구지표에서는 약 66cm 깊이까지 굴착되어 있었다. 한편 구덩이 내부 남측에 지름 약 1.2m 크기의 원형구덩이가 목탑지 중심에서 동쪽으로 75cm 떨어져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에서 심초석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에서는 풍화암반층 위에 그대로 심주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남북 길이 약 2.4m, 동서 폭 약 2.1m 규모의 계단처럼 만들어졌다<도면 7>.

남측의 원형 구덩이 바닥에서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상자 모양의 용기가 확인되었는데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이 용기 내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사리용기로 추정되며 목탑지의 2차, 3차 개축 시 용기 내부의 유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0>. 출토 연화문수막새를 바탕으로 대체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7> 금강사지 목탑지 심초부 실측도  
(國立博物館, 1969, 위의 책,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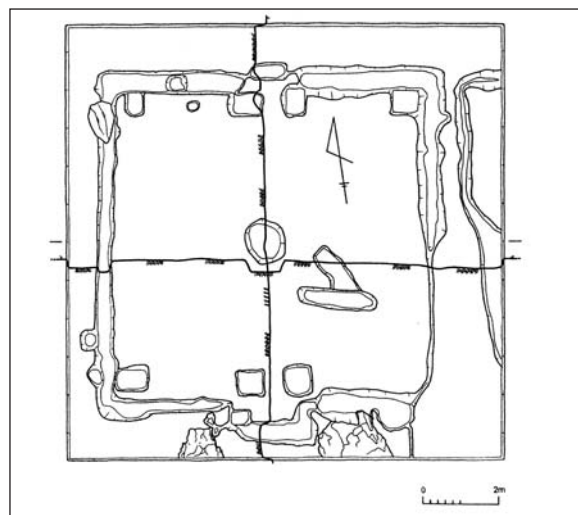


<사진 10> 금강사지 목탑지 심초부 구조와 판축토현황  
(國立博物館, 1969, 위의 책, 圖版 十六)

### 6. 서복사지<sup>17)</sup>

서복사지는 목탑지에서 심초석과 사리 관련 유물들은 확인되지 않은 백제 사찰 유적이다. 기단은 한 변 약 8m의 정방형으로 구축되었고 원래 높이는 1.25m 정도로 판단되는데<sup>18)</sup>, 풍화암반토를 삭토하여 구축하였다. 다만 목탑지 중심에는 심초석이 빠져나간 자리가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바닥 직경 80cm내외, 깊이 30cm로 평면상 타원형 구덩이이다<도면 8>.

한편, 심초구덩이 동남쪽 약 1.5m지점 풍화암반층 바닥에서는 금동제과판(金銅製鍔板)이 출토되었는데 다른 매납 시설 없이 가지런하게 놓인 상태로 출토되어 지신에 제사할 때 사용한 지진구나 진단구로 추정하였다. 출토 유물인 연화문수막새로 창건연대를 추정해보면 대체로 7세기 전반~중반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도면 8> 서복사지 목탑지 발굴 평·단면도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위의 책, p.25)

16 國立博物館, 1969, 『金剛寺-扶餘郡 恩山面 琴公里 百濟寺址 發掘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七冊

17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廢寺址 發掘調查報告-』, 『扶蘇山城 發掘調查報告書』

18 금당지 계단의 복원 높이를 고려하여 전체 기단의 높이는 약 1.25m로 추정된다.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위의 책, p.25)



### 7. 제석사지<sup>19)</sup>

제석사지 심초는 현 지표에서 약 200cm의 기단토 상면 정중앙에 위치한다. 화강암의 심초는 평면 방향으로 크기는 길이 180cm, 두께 90cm이다. 상면 가장자리는 모죽임 형태로 되어 있어 모죽임이 되지 않은 평면만 다듬고 나머지는 거칠게 다듬어 가공하였고 2매로 절단된 채 남아 있다. 심초 상면 중앙에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는데 길이 60cm, 폭 26cm, 깊이 18cm이다<사진 11>.

제석사지 목탑지 기단부는 지하에서 지상까지 관측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초를 위한 별도의 관측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심초 하부까지 기단부가 남아 있어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사진 12>.

한편 익산 왕궁리오층석탑 내부 출토 사리기는 『觀世音應驗記』에서 제석정사(帝釋精舍)가 “貞觀十三年(A.D 639) 災害에 의해 소실”된 기록을 근거로 그 출토지가 제석사지로 비정되고 있다. 익산 왕궁리오층석탑 내부인 1층 옥개석 및 기단내부에서 사리구가 확인되었는데 옥개석에서는 금동사리외함·내함, 사리병(사리공동), 금동법사리외함·내함, 금강경판이 출토되었고, 기단내부에서는 금동여래입상, 청동명(사리공 동)이 출토되었다<sup>20)</sup>. <사진 13>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따라 정관(貞觀) 13년(639년) 뇌우로 인하여 불당과 칠급부도(七級浮圖) 및 낭방(廊房)이 모두 불탔다는 기록이 전해져 7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사진 11> 제석사지 심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사진 12>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출토유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사진 13> 목탑지 전경(서에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 8. 황룡사지<sup>22)</sup>

황룡사지 심초는 목탑지 잔존 기단토 상면 정중앙에 노출되도록 위치한다. 화강암의 심초 크기는 동서 최대 길이 435cm, 남북 최대길이 300cm, 두께 104~128cm이다. 상면은 평평하게 다듬었고 하부는 대충 다듬은 형태로 동서단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이며 남북단면은 비교적 평탄하다. 상면 정중앙에는 한 번 49cm, 전체 높이 34.5cm의 단이 쳐 있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사리공 뚜껑돌이 놓이는 곳은 깊이 8.5cm 폭 8.5cm이며 그 아래쪽에 깊이 26cm 폭 29cm의 공간에 사리장치가 놓이도록 조성되었다. 다만 사리공은 이미 1964년에 도

1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익산 제석사지 1차 현장설명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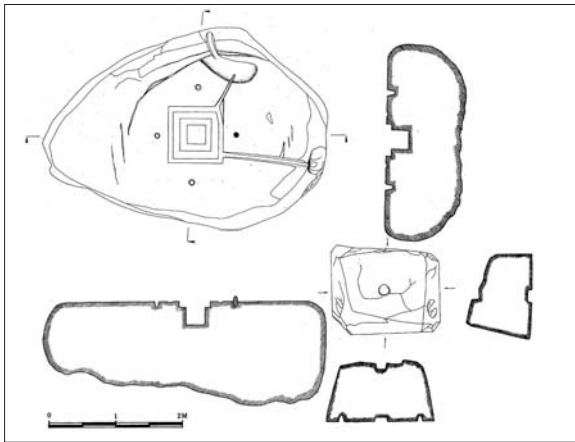
20 기단부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은 형태적 특징상 10세기초 작품으로 추정되나, 1층 옥개석 중앙에서 출토된 금제 외함 및 내함, 금강경판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제 때의 작품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백제, 통일신라, 고려초기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21 김연수, 1999, 위의 논문,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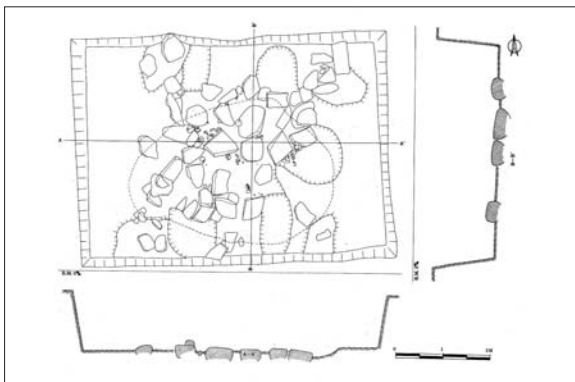
22 황룡사지는 신라 목탑지이나 백제목탑 출토 심초와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삼입하였다.

난을 당했고 이후 1966년에 일부 유물만이 수습되었다. 또한 심초 상면에는 물이 사리공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구(周溝)를 마련하였고 직경 90cm의 원형 기둥이 놓여 있었던 주좌 흔도 확인되었다<도면 9>.

심초는 약 40~80cm까지 비교적 큰 냇돌로 조성한 적심시설 상면에 놓여 안치되어 있었는데 적심 사이에는 작은 자갈돌과 부식토로 덮혀 있었다. 이러한 적심 시설에 사용된 석재는 심초구덩이와 심초 사이에 채워져 심초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데 이용되었다<도면 10>. 출토유물로는 삼국시기의 사리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목탑지에서 확인된 사리구는 경문왕대에 새로 매납한 유물들이다<sup>23)</sup>. 『三國遺事』등 문헌기록을 통해 645년경 탑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sup>24)</sup>.



<도면 9> 목탑지 심초석 실측도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위의 책 圖版編, 圖面40-2)



<도면 10> 목탑지 심초석 하부 적심석과 유물출토상태 평면도 및 단면도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위의 책 圖版編, 圖面40-2)

### III. 심초

#### 1. 심초 형태와 구조<sup>25)</sup>

심초는 목탑의 중심 기둥인 심주를 받치기 위한 주초(柱礎)를 말하는 것으로, 일부 심초에서는 사리기 등을 봉안하는 사리공(舍利孔)이 있어 사리함(舍利函)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대 목탑지 가운데 심초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전 천왕사지, 제석사지, 황룡사지 등 6개소가 있다. 확인된 심초는 대부분 화강암재의 석재로 제작되었고, 심주가 세워지는 심초 상면만 평평하고 정교하게 가공되고 나머지는 대충 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심초 상면에는 간혹 주구, 모서리 부분의 홈과 주좌 흔이 확인되기도 하나 대부분 이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문에서 살펴 본 심초, 사리공 및 뚜껑돌 크기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즉, 군수리사지의 경우 심초 상면 규모가 한 변 94cm에 해당하며 심초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왕흥사지 심초는 단변 100cm, 장변 106cm로 심초 남쪽 가장자리에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고 상면으로 뚜껑돌이 덮혀 있다. 능산리사지 심초는 단변 106cm, 장변 130cm로 심초 상면 중심에 심주가, 그 남쪽에는 석조 사리감이 위치한다. 전 천왕사지 심초는 단변 94cm, 장변 108cm로 심초 상면 중심부에 뚜껑돌이 놓이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제석사지 심초는 한 변이 180cm에 두께 90cm로 정중앙에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황룡사지 심초는 단변 300cm, 장변 435cm의 가장 큰 심초로 심초 상면 중심부에 뚜껑돌이 놓이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심초는 심초에 사리공의 결합 유무(有無) 또는 평면형태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는 심초에 사리공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 무공형, 결합되어 있는 경우 유공형으로 세분되며, 후자는 심초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 장방형, 타원형으로 세분된다 <표 2>.

23 강우방, 1993, 위의 책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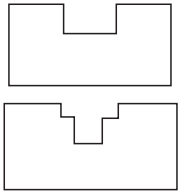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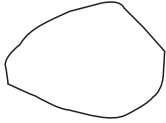
24 『三國遺事』卷第三塔像4 黃龍寺九層塔. 善德王代 貞觀十九年乙巳 塔初城.

25 정자영, 2006, 위의 논문 제4장 참조.

<표 1> 심초 및 사리공 제원표

유적명	심초 크기(cm)	사리공 크기	뚜껑돌
군수리사지	한 변 94cm, 두께 38~45cm	-	-
왕흥사지	단변 100cm, 장변 110cm, 두께 50cm	단변 12cm, 장변 16cm, 깊이 16cm	단변 12cm, 장변 16cm, 턱 0.8cm
능산리사지	단변 106cm, 장변 130cm, 두께 50cm	높이 74cm, 너비 50cm(사리감)	-
제석사지	한 변 180cm, 두께 90cm	단변 26cm, 장변 60cm, 깊이18cm	-
전 천왕사지	단변 108cm, 장변 94cm, 두께 50cm	단변 9.5cm, 장변 12cm	
황룡사지	단변 300cm, 435cm, 두께 104cm	깊이 26cm, 폭 29cm	깊이 8.5cm, 폭 8.5cm

<표 2> 심초 분류표 1

단면형태 1		평면형태 2		
무공형	유공형	방형	장방형	타원형
				

위와 같은 사리공 결합유무 분류기준에 따르면 무공형에는 평면이 평평하게 제작되어 있는 군수리사지와 능산리사지가 이에 해당하고 사리공이 마련된 유공형에는 왕흥사지, 제석사지, 전 천왕사지, 황룡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사리공은 그 위치에 따라 심초 남쪽 가장자리에 마련된 경우와 심초 정중앙에 마련된 경우 2가지로 구분되는 데 전자에는 왕흥사지, 후자에는 전 천왕사지, 제석사지, 황룡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리공 내부에는 뚜껑 턱이 마련된 경우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전자에는 전 천왕사지, 황룡사지가 이에 해당하며, 후자에는 왕흥사지, 제석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왕흥사지의 경우는 사리공 상면을 덮고 있던 뚜껑돌이 확인되었는데 뚜껑돌 자체에 턱이 마련되어 있어 사리공과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뚜껑돌은 모죽임(蓋頂形)<sup>26)</sup>으로 제작되어 있어 심초 상면으로 돌출된 상태이다. 이처럼 사리공 내부에 뚜껑 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뚜껑돌 내부에 턱을 마련하여 사리공과 결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평면형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장방형의 심초는 군수리사지, 제석사지가 이에 해당하고, 방형의 심초는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전 천왕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타원형 심초는 황룡사지가 유일하다.

<표 3> 심초 형태분류표 2

형태 / 유적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제석사지	전 천왕사지	황룡사지	
단 면 형	무공형	○	○					
	사리공	남측 턱			○	x		
		중앙 턱				○	x	○
	뚜껑			○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평 면	방형	○			○			
	장방형		○	○		○		
	타원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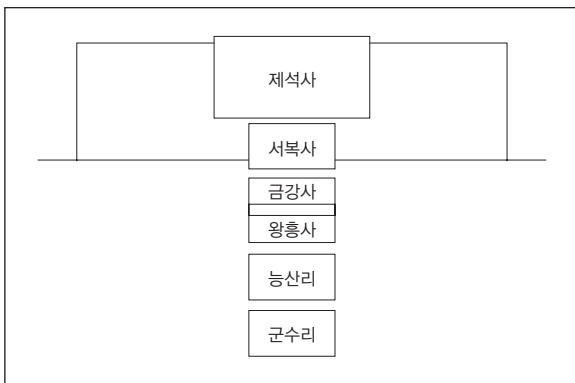
26 김연수, 2008, 「扶餘 王興寺 木塔址 出土 舍利莊嚴具에 대하여」, 『扶餘王興寺址出土 舍利器의 意味』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자료집 p.43 각주 2).

## 2. 심초 안치위치 및 방법

### 1) 안치위치<sup>27)</sup>

목탑에서 심초는 안치위치에 따라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 심초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하식 심초는 지표면 아래인 땅 속에 안치되는 것을 말하며, 반지하심초는 지표면이나 그 상부에 안치되면서 탑 기단 내부에 묻히는 것을 말한다. 지상식 심초는 심초 상면이 탑 기단 상면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심초의 안치위치에 따라 심주 뿌리가 지하 또는 탑 기단에 묻히는 정도와 깊이도 달라진다.

지하식 심초는 군수리(심초 상면기준 지하 1.8m), 능산리(지하 1.1m), 왕흥사지(지하 0.5m)에서 확인되었으며, 심초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위치로 미루어 보아 금강사지(지하 0~0.66m)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지하식 심초는 서복사지가(0m)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지상식 심초는 기단 상면에 심초가 놓여진 제석사지(지상, 약 2m), 황룡사지(지상 약 1.4m)와 목탑지 정중앙에서 심초 및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미륵사지(추정, 지상 1.3m)도 동일 형식인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1>.



<도면 11> 심초 안치 위치도

### 2) 안치방법

#### (1) 심초구덩이 및 사도

심초구덩이란 심초를 안치하고 고정하기 위하여 심

초가 놓일 위치에 심초보다 크게 구덩이를 파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목탑지에서 심초구덩이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군수리사지·왕흥사지·능사·금강사지가 있다. 심초구덩이는 평면상 장방형 및 타원형으로 구축되며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심초구덩이는 사도와 연결되어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표 4>

<표 4> 심초구덩이 비교표

유적명	형태	크기(cm)	깊이(cm)	굴광선확인	사도포함(cm)
군수리사지	장방형	244×188	194	잔존 기단토	818
능산리사지	장방형	260×220	197	잔존 기단토	-
왕흥사지	장방형	200×	-	잔존 기단토	약520
금강사지	장방형	181	121.2	잔존 기단토	406

사도란 경사진 길을 의미하는데 목탑지에서는 심초와 관련되어 구축된다. 지금까지 사도는 군수리사지·왕흥사지·금강사지에서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지하에 심초가 안치된 지하식 심초에서 확인된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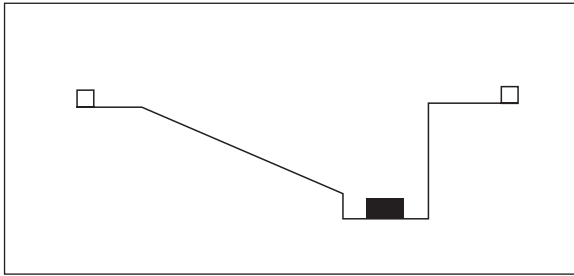
사도는 단면형태에 따라 계단식 사도<도면 12>와 경사식 사도<도면 13>로 구분되는데 계단식 사도는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금강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군수리사지의 경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나 금강사지는 사도의 길이가 비교적 짧아 완만한 경사보다는 수직에 가까운 단으로 지어졌다. 이러한 사도는 심초 측면부에 위치하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그 폭이 심초보다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도는 지하에 놓이는 거대한 심초를 운반하기 위한 반입로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유적마다 위치와 그 기능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는 서측에, 왕흥사지는 동측에 위치한다.

<표 5> 사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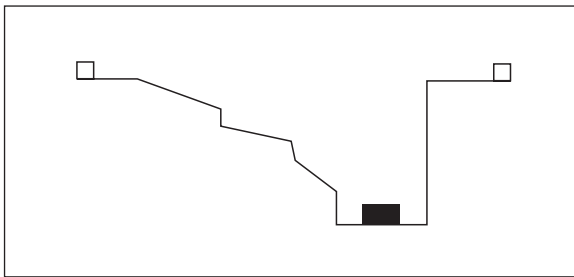
유적명	형태	크기(cm)	폭(cm)	방향	기타
군수리사지	계단식	414	180	서측부	
왕흥사지	계단식	350	248	동측부	
금강사지	계단식	241	210	서측부	

27 정자영·탁경백, 2007, 위의 논문 pp.123~130. 위 논문에서는 지하식과 지상식으로만 구분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초가 구지표면 이상에 놓이거나 지상으로 심초가 노출되지 않고 기단토 내에 묻히는 것을 반지하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반지하식은 이미 佐川正敏, 2006, 위의 논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28 서복사지의 경우 금당지 기단 높이를 복원한 결과 약 1.25m로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탑 기단도 약 1.25m로 보았을 때 현재 남아있는 목탑지 기단에서 확인되는 심초구덩이가 심초석의 바닥부분이라고 보면 심초의 평균 두께 50cm로 볼 경우 기단 내부에 묻힌다고 판단되어 반지하식으로 설정하였다.



〈도면 12〉 경사식 사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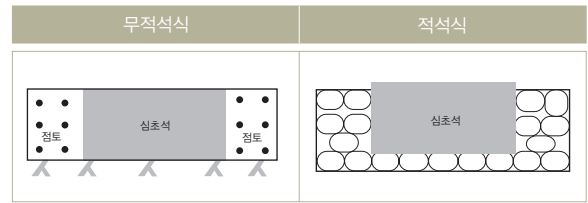


〈도면 13〉 계단식 사도 모식도

(2) 심초 고정

심초를 안치한 후 심초를 고정시키는데 이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 무적석식과 적석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도면 14〉.

무적석식에는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제석사지가 이에 해당하며 적석식에는 황룡사지가 이에 해당한다. 무적석식인 군수리사지와 능산리사지는 생토층인 모래층 상면에 아무런 시설 없이 바로 심초를 놓은 후 주변에 점토 및 점토와 숯이 섞인 채움토를 채워 넣어 단단하게 고정하였다. 왕흥사지의 경우 심초석 하부를 어느 정도 성토다짐한 후 심초를 올려 놓고, 그 주변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토다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형 석재가 혼입되어 있다. 제석사지의 경우는 심초석 하부까지 기단부가 판축되어 판축층 상면에 바로 올려놓았다. 적석식에서 심초는 그 하부에 강돌을 정연하게 깔아 적심 시설하여 그 위에 안치되며, 그 후 심초 주변에 적석을 채워 넣어 심초를 고정하였다. 백제의 목탑 심초 하부는 주로 생토 및 판축층 위에 심초를 올려 놓은 반면 신라의 목탑 심초하부와 주변에는 적석하여 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4〉 심초 안치 모식도

## IV. 사리구

### 1. 사리구 종류와 형태

사리구는 사리(용)기와 그것을 장엄하기 위한 공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리기는 사리를 넣는 사리병과 그 외곽을 보호하는 은, (금)동, 석재 등 3중, 4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즉 사리병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을 사리함이라 칭하는데 이는 사리 내함(內函)과 외함(外函)으로 구분되며 사리 내함에는 합(盒)과 호(壺)가, 사리 외함에는 금속 또는 석함(石函)이 이에 속한다<sup>29)</sup>.

사리기로는 왕흥사지,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품과 능산리사지 출토 사리외함인 석조사리감이 있다. 왕흥사지 사리기는 금제사리병·은제사리호·청동제사리합 등 3종이며, 왕궁리 출토 사리기는 유리병·금동사리내함·금동사리외함 등 3종과 금강경관, 금동법사리내함, 금동법사리외함, 그 외에 금동여래입상, 청동명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익산 왕궁리 출토 사리기는 『觀世音應驗記』에서 제석정사(帝釋精舍)가 “貞觀十三年(A.D 639) 災害에 의해 소실”된 기록을 근거로 그 출토지가 제석사지로 비정되고 있다. 한편 능산리사지(A.D 567) 출토 석조사리감 명문 “百濟昌王十三年太歲在丁亥妹兒公主供養舍利”과 왕흥사지(A.D 577) 출토 청동제사리합 명문 “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昌王爲三王子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에는 사찰 조영 연대와 주체,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황룡사지 목탑지 심초 내부에서도 사리기가 확인되었으나 삼국시대가 아니라 9세기 경문왕 때 새롭게 매납된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에 해당한다<sup>30)</sup>. 한편 사리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9 김희경, 1996, 위의 책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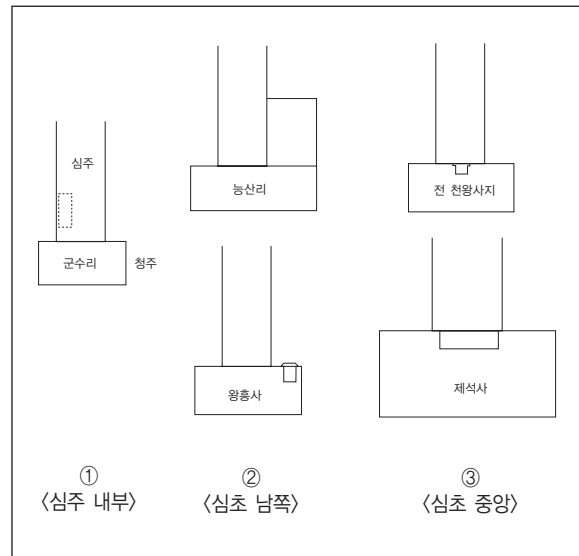
30 강우방, 1993, 위의 책, p.42

금강사지 원형 심초구덩이 바닥에서 목제상자가 확인되었는데 일본의 비조사(飛鳥寺)에서도 목제상자가 사리의외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강사지 목제상자도 사리의외함일 가능성이 크다.

사리기 주변에서는 공양품들이 매납되었는데 군수리사지는 심초 상부에서 불상 2점·금환·소옥류 등, 능산리사지는 심초 주변에서 소조불두·소조불·심엽형 고리 등 약 560여점, 왕흥사지는 심초 남편에서 관모를 비롯해 금, 은, 동, 합금제품·옥제품·유리 등 8,000여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목탑지에서는 간혹 진단구가 확인되는데 서북사지의 경우는 동남쪽 약 1.5m 지점 풍화암반층 바닥에서는 금동제과판(金銅製鍔板)이 다른 매납 시설 없이 가지런하게 놓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황룡사지의 경우 심초 하부 적심토 및 기단토에서 생활용기를 비롯하여 다량의 진단구가 매납되어 있다.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제석사지 심초 하부에서는 별다른 진단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 2. 사리기 봉안장소

사리기는 주로 심주 또는 심초의 사리공, 별도의 사리함에 넣어져 봉안된다. 군수리사지는 사리기가 출토되지 않고 심초 상면에서 사리구 일부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사리기는 심초에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리함이 놓일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평면정방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심주 내부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31)</sup>〈도면 15-①〉. 능산리사지 사리기는 석조사리감이라는 석함을 제작하여 그 속에 봉안하였는데 석조사리감은 심초 상면이나 심주 남쪽 위치한다. 이러한 석함을 놓기 위하여 능산리사지 심초는 남북 길이가 좀더 길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5-②〉. 이 경우 심초 상면에 심주와 사리기가 남북 일직선상에 나란히 배치되어 사리기가 심주 남쪽에 위치하게 된다. 왕흥사지 사리기는 심초 남측 가장자리에 마련된 장방형의 사리공 내부에 뚜껑이 덮힌 채 봉안되는데, 능산리사지 심초와 같이 사리공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심초는 남북 길이가 좀더



〈도면 15〉 사리기 봉안장소 모식도

길게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심초 내부인 남쪽 가장자리에 사리기가 위치하며, 심주는 심초 중심에 세워지게 된다〈도면 15-②〉. 사리기가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제석사지와 전 천왕사지의 경우도 장방형과 방형으로 된 사리공이 심초 중앙에 위치한다. 이 경우 사리기는 뚜껑이 덮힌 채 봉안되고, 심초 중심부에 세워지는 심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황룡사지의 경우 방형으로 된 사리공이 심초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 경우도 사리기가 심주 아래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도면 15-③〉.

## V. 시기적 변천과정 검토

### 1. 심초

#### 1) 심초의 변천

심초는 크기와 사리공의 위치에서 변화의 양상이 관찰된다. 즉 심초 크기는 크게 ①100cm이하(군수리사지), ②100~130cm(왕흥사지, 능산리사지, 전 천왕사지), ③180cm이상(제석사지), ④300~430cm(황룡사지)로 구별된다. ①과 ②는 10~30cm 정도의 차이를 두고

31 2006년 심초하부 발굴조사 결과 별다른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 「부여군수리사지」, 『백제문화를 찾아서』, 일본 尼寺廢寺(7세기 후반)의 경우 심초 상면에서 사리구들이 출토되었으나 심초에 사리공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에서 심초에 이러한 유물이 봉안된 것으로 보았다. 香芝市教育委員會, 2003, 香芝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4集, 「尼寺廢寺 I - 北廢寺의調査」 第12圖 탐기단구축복원모식도.

②에서 ③은 50~80cm정도 차이가 나며 ③에서 ④는 약 120~250cm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①과 ②의 심초 크기 차이는 심초 내부에 사리가 봉안되면서 부터 사리공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크기가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심초의 평면 형태를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제작하도록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처럼 사리공이 남쪽에 위치할 때는 심초가 장방형이나 전 천왕사지 같이 사리공이 중심부에 위치할 때도 심초가 장방형으로 제작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③과 같은 제석사지 심초는 『관세음응험기』의 기록을 근거로 7층탑으로 비정되고 있고, 목탑지 규모도 부여지역에서 확인되는 군수리사지(한 변 14.14m), 왕흥사지(한 변 12.2m(굴광판축선 기준)) 등 목탑지 크기보다 훨씬 큰 한 변 20m정도의 정방형으로 7층탑의 심초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리공은 장방형으로 제작되었고 이러한 장방형의 사리공에 적합하도록 사리함도 장방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익산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함이 그 규격에 해당한다. 또한 ④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룡사지 9층 목탑의 심초로 9층의 목탑을 세울 수 있는 심초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③의 제석사지 심초가 7층의 목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석사지 심초와 황룡사지 심초로 미루어보아 ①과 ②의 심초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목탑을 조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고대 목탑심초는 그 크기와 목탑의 기단규모가 비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리공의 위치는 심초 남쪽 가장자리에서 정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심초 안치 위치의 변천

심초 안치 위치에서도 변화의 양상이 관찰된다. 즉, 지하식 심초인 군수리사지는 심초 상면이 지하 1.8m에 놓이게 되어 지상의 기단높이를 약 1m로 추정하였을 경우 심초 위에 세워지는 심주는 약 2.8m 이상 기단부에 의해 지지되게 되고, 능산리사지는 약 2.4m, 왕흥사지는 약 2.0m, 금강사지는 약 1.8m 정도가 지지된다. 금강사지에 심초(두께 약 50cm)가 놓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1.3m정도 지지가 되며, 반지하식인 서복사지에 심초가 놓였을 경우를 생각하면 약 1.0m정도 지지된다. 즉, 심초 상면에서 구지표면까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군수리 → 능산리 → 왕흥사지로 가면서 그 위치가 약 0.6m정도 차를 두고 옮겨가며, 금강사지와 서복사지의 경우 심초가 놓였다고 가정한다면 왕흥사지에서 금강사지는 약 0.5m, 금강사지에서 서복사지의 경우 약 0.4m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점진적으로 그 위치가 이동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금강사지 심초가 구지표면 이하에 놓이다가 서복사지가 조성되면서 더 이상 심초가 구지표면 이하에 놓이지 않게 되고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흥사지와 금강사지 심초는 구지표면 가까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반지하식으로 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지표면 위로 올라온 심초는 기단부에 의해 묻히게 되지만 지상식 심초인 제석사지는 심초 상면이 지상에 노출되면서 심주는 더 이상 지하에 묻히지 않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 2. 사리구

### 1) 사리기 종류 및 형태의 변천

삼국시대의 사리구가 원위치에서 확인된 경우는 왕흥사지와 익산 왕궁리오층석탑 내부 출토 사리구가 이에 해당하나 왕궁리의 경우 원위치에서 옮겨진 것을 매납한 상태로 전적으로 원위치라고는 볼 수 없다.

사리구의 구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리를 넣는 사리병과 그 외곽을 보호하는 함(函)들로 구성되어 있다. 능산리사지의 경우 가장 외곽에 석조사리감을 외함으로 사용하였다. 왕흥사지 경우 사리병과 은제사리호, 금동제사리함과 외함에 해당하는 심초까지 4중 구조로 이루어진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능산리사지에서는 외함을 별도로 제작하다가 왕흥사지로 가면서 심초를 외함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사지 원형의 심주 구멍이 내부에서 목제상자 출토되어 목제외함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 왕궁리오층석탑에서는 사리를 담은 그릇이 병으로 바뀌고, 금동사리내함, 금동사리외함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 2) 사리기 봉안장소의 변천

사리기 안치위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사리구는 군수리사지와 같이 심주 또는 별도의 장소에 안치되다가 능산리사지 시기가 되면 심초 상면 심주 남쪽에 안치된다. 위의 경우는 아직까지 심초에 사리공이 마련되

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왕흥사지 시기가 되면 사리공이 비로서 심초 내부에 자리 잡게되고 그 위치는 능산리사지와 동일하게 심주의 남쪽이자 심초 남측 가장 자리에 해당한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를 비교하면 사리기가 별도의 석함에서 심초 사리공 내부로 안치 장소만 옮겨졌을 뿐, 그 위치는 동일하다. 즉, 사리기는 심초 정중앙에 세워지는 심주의 남쪽에 위치하여 심주와 병렬이 되도록 배치된다. 한편 제석사지와 전 천왕사지 시기가 되면 사리공이 심초 정중앙에 마련되어 심초와 심주 사이에 사리기가 놓이게 된다. 즉 심초 정중앙에 사리공이 마련되면서부터 심초와 사리기와 심주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심주와 사리기가 수직으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가 동일한 왕에 의해 10년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리기는 계속 심초 남측이자 심주 남쪽에 위치하지만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면 사리기가 정중앙에 안치되어 그 위치가 심초 남측에서 정중앙으로, 심주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배치가 변화되고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신라에서 확인된 목탑 출토 심초 및 사리봉안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6세기~7세기 고대 목탑의 심초 위치가 지하에서 지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심초의 안치위치가 군수리사지 → 능산리사지(A.D. 567) → 왕흥사지(A.D.577) → 금강사지 → 서복사지 → 용정리사지 → 미륵사지(A.D.600~640), 제석사지(A.D.~639), 황룡사지(A.D.645)로 점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심초 안치 위치 뿐만 아니라 심초 또한 군수리, 능산리, 왕흥사지, 전 천왕사지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제석사지나 황룡사지에 가면 크기, 두께 모두 거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심초는 사리함과 별도로 제작되었으나 왕흥사지에 가서 심초에 사리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심초가 지상화하기 이전인 지하에서 확인되는 사례로 유일하다.

또한 심초가 지상화하면서 사도가 더 이상 확인되

지 않아 심초의 지상화와 함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백제대사(百濟大寺) 기단도 판축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심초 반입로인 사도가 확인된 바 있어, 심초 반입로의 기능으로서 사도가 일부 기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리기의 종류와 형태적 특징에 대한 변화양상은 자료가 미약한 관계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출토된 상태로 보아 사리기는 사리함에 봉안되고 공양구는 사리기 주변에 가지런히 매납되어 양자의 구분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사리 봉안장소 및 위치 변화가 관찰되는데 사리봉안 장소가 군수리사지나 능산리사지와 같이 심초와는 별개로 석함이나 별도의 용기에 봉안되었다는 것이고 왕흥사지에 가면 사리가 심초 내부에 봉안되기 시작한다. 사리기의 봉안장소도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는 심주의 남쪽에 배치되도록 위치하여 심초와 심주가 수직화되고 사리기는 병렬 배치된다. 전 천왕사지, 제석사지, 황룡사지는 심초 아래에 배치되어 심주와 심초, 사리기가 수직화된다.

## 참고문헌

- 강우방, 1993,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 廢寺址 發掘調査報告-」, 『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 國立博物館, 1969, 『金剛寺-扶餘郡 恩山面 琴公里 百濟寺址 發掘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七冊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2, 『王興寺 發掘中間報告』, 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33輯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 「부여 왕흥사지」, 『2003 年報』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4, 「부여 왕흥사지」, 『2004 年報』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6, 「부여 군수리사지」, 『2005 年報』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7, 「부여 군수리사지」,



- 『2006 백제문화를 찾아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 (제8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8, 『扶餘 王興寺址出土 舍利器의 意味』,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國際學術大會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익산 제석사지 1차 현장설명회자료」
  -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 本文 / 圖面 · 圖版,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查報告書 第8冊
  - 權鍾滿, 1998, 「韓國 古代 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研究 : 皇龍寺 木塔의 復元的 考察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學位論文
  - 김연수, 1999, 「百濟의 舍利莊嚴에 대하여」, 『東垣學術論文集』 第2輯
  - 文化財研究所 文化財管理局, 1982, 『彌勒寺址 發掘調查 中間略報告』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發掘調查報告書』 I
  - 文化財研究所 文化財管理局, 1989,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b, 『扶餘舊衙里百濟遺蹟發掘調查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7輯
  - 扶餘文化財研究所, 1993c, 『扶餘 傳 天王寺址 文化財保存地區 發掘調查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查報告書』, 遺蹟調查報告36輯
  - 鄭子永, 2006, 「한국 고대 목탑지 기단 및 심초부 축조기법 연구 - 부여 군수리사지를 중심으로」, 崇實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 石田茂作, 1937,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查(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查報告』, 朝鮮古跡研究會
  - 奈良文化財研究所, 1958, 『飛鳥寺發掘調查報告』

# A Study on the Simcho of Wooden Pagodas in Baekjae

**Jung, Ja Young**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5 August 2008 / Revised : 25 September 2008 / Accepted : 10 October 2008]

##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excavation studies of wood pagodas from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hilla periods and new data related to wood pagoda erection are being found bringing about progress in research on this field. In other words, studies on wooden pagodas in Korea were composed mainly of flat, axis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arijangeomgu, but by acquiring new data, it has now become possible to study not only the stylobate construction procedure and transition, but also studies on restoring wooden pagodas. Furthermore, pagoda sites similar to this were found in China and Japan as well, making it possible to make comparative studies among ancient wooden pagodas possible.

In this paper, the main remains were set as Baekjae wooden pagodas, which we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and among the wooden pagodas, the simcho (central base stone) and sarira housing locations. In result, simcho can be found changing its position from underground→halfway underground→above ground. Baekjae wooden pagodas up until the mid sixth century located at Neungsan-ri saji (AD 567) and Wangheungsaji (AD 577) had its simcho located underground and later it was constructed halfway underground and then above ground.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7th century, it became customary to place above ground as seen in the Jaeseoksaji (AD639) and Hwangnyongsaji (AD645) wooden pagoda sites. The sarira was usually located on the south side of the simcho, but gradually changed to the center. In particular, sarira were combined in the simcho in the mid sixth century at the Wangheungsaji. This is approximately 11 years earlier than the Bijosa (AD 588) simcho found in Japan and this was not found even in the simcho of wooden pagodas in Yeongnyeongsa (AD 516) and Jopaengseong temple (AD 535~561) of China showing that the Wangheungsaji simcho was the earliest of its kind.

**Keywords** : Wooden Pagoda, Simcho, Sarira